

#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차를 중심으로

이인정<sup>1</sup>, 김미영<sup>2\*</sup>

<sup>1</sup>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up>2</sup>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Factors Affecting on Happiness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In-Jeong Lee<sup>1</sup>, Mi-Young Kim<sup>2\*</sup>

<sup>1</sup>School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복지실태조사(2018)에서 1인 가구라고 응답한 청년 263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 사회적 요인, 가구 및 가족관계 요인, 생활영역별 만족도 요인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위계적 회귀분석하여 예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인 청년 중 남성과 여성 집단 간 행복에 대해 영향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거영역의 만족도', 여성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었다. 남성의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다.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여성의 경우 유의미하였으나 남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과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성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one-person households by identifying the predictors that affect the happiness of young adul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n 263 individuals from the Seoul Welfare Survey (2018).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demographic data (age, education, employment, monthly income, and subjective social class), household and family factor (period of living as a single pers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original family), and life satisfaction facto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predictors on happines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groups was different. 'Satisfact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me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original family members' for women were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for happiness. A gender difference was identified 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happin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relative influence.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were suggested.

**Keywords** : Single-Person Household, Youth, Happiness, Gender Differences, Regression

---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Kim(Halla University)

email: mykim@halla.ac.kr

Received March 17,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April 2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 1. 서론

삶에 대한 깊은 만족을 의미하는 행복은 고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가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1]. 하지만 능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전체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2]. 우리나라 역시 IMF 구제금융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행복 수준은 OECD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3].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중침체(double deep)'을 경험하며 '역대 가장 불행한 세대'라 일컬어지기까지 하는[4] 청년 세대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세대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미래사회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현재 사회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등 이전 세대와 비교해 높은 실업률, 낮은 결혼율, 출산 포기 등의 가시적인 사회지표뿐만 아니라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에서 취업과 자택 마련 꿈을 포기하는 '5포'를 거쳐,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함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포기를 암묵적으로 강요당한다는 'N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청년들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 불안정한 노동환경, 급격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있다. 또한 '수저계급론'이라 불리는 사회의 기회 불평등에 직면하며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미흡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5]. 이에 청년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며 우리나라를 '헬조선'라 칭하며 이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비율까지 늘어나고 있다[6].

이러한 청년세대의 좌절과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높은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 청년세대가 겪는 삶의 불안정성과 불행들은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들의 노후 삶까지 이어져 빈곤의 세습화 경향성이 강화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8]. 그러므로 이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청년 정책의 대상이나 지원범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 고용정책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년의 삶에서 다각적 분야에서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접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7].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행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극히 적으며[8,9].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고용 불안정, 취업 스트레스, 부채, 일자리 만족도, 주거안정 등의 영향력을 검토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 수준, 삶의 기대, 주관적 사회계층과 기회 공정성 인식 등의 요인들과 행복 간의 관계가 고찰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행복과 그 예측요인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면적으로 영향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8]. 청년기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행복 결정요인과 성인기의 행복 결정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10] 다면적인 요인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청년기 행복 요인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기존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영향요인을 함께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9년 615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3이 넘어서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11]. 1인 가구 중 35%로 전 연령층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년세대이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증가 추이가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고립감,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1/4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 불안정의 물리적 환경의 문제 노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2,13]. 이처럼 전통적 가족 형태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1인 가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의 행복을 고찰한 연구가 필요한데도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 이루어진 연구로, 장신희와 김연재(2016)의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전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층만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김영주와 박인경(2020)은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을 검토한 연구가 있었지만, 행복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1인 가구 청년들의 행복 수준과 예측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14].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크게 심리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리학적 요인을 고려하였다[10].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존중감, 내적통제성, 인간관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인지적 판단에 근거한 행복과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생리학적 요인은 정서적 행복과 관련이 있는데 근육이완, 몸짓, 얼굴표정 등이 정서와 연관되어 정서적 행복감을 높이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요인도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10], 청년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차(gender difference)에 대해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대와 규범이 다르고 이로 인해 남녀가 겪는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15]. 이런 차이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다르게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정서인 행복은 성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고,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1,16].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행복 수준의 성별 차이를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이들 연구도 성별을 하나의 변인으로 연구모델에 투입하여 유의미한 영향 여부만을 검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별 간 영향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면밀하게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를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행복의 영향요인에 남성과 여성 청년 집단 각각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 서비스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현 우리나라 청년의 특징인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이들의 행복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성차에 대해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적 노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의 행복에 대해 경제적 요인과 함께 다차원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성차에 따라 이들 요인의 영향 관계에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8년에 실시된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이용하여 다단계층화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3,00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컴퓨터 활용 가구 방문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인 청년세대를 조사하고자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응답한 3,000명 중 단독가구라고 응답한 사람 중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사람을 총 263명을 선별하였고 이 중,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다른 인생 경험으로 집단의 동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5명은 제외하였다. 이런 절차를 통해 남성 101명, 여성 157명을 총 25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행복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어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를 묻는 1개 문항의 이 척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행복했다.' 까지 0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가진다.

#### 2.2.2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학력, 근로 여부, 월평균 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으며 고졸 이하가 0, 대졸 이상을 1로 하였다. 근로 여부도 더미 변수 처리하였으며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0,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로 처리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에 응답한 내용을 12개월로 나누었으며 주관적 계층 인식은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상상'부터 '하하'까지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2.2.3 가구 및 가족 요인

가구 및 가족 요인은 가구 요인으로 혼자 생활한 기간을 투입하였고, 가족 요인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를

문은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매우 불만족'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 2.2.4 생활영역별 만족도 요인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 생활영역별 정책과 지원수준에 대한 만족에 대한 질문에서 보호·안전(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 등), 건강(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접근성 등), 교육(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기회 보장 등), 고용(취업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 주거(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성 향상 등), 문화 여가(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고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변수 간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주요변수의 남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은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예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7.0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남성이 평균 28.33세(표준편차: 4.30), 여성이 29.61세(표준편차: 3.62)였다.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교 재학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76명(75.1%), 여성은 134명(85.2%)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남성이 평균 197.43만원(표준편차: 151.67), 여성이 225.90만원(표준편차: 101.85)이었으며 남성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33명(32.8%)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여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85명(54.0%)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형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비경제활동)가 남성이 26명(25.3%), 여성 16명(10.2%)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다(남성 61명(60.5%), 여성 134명(85.8%)). 혼자 생활한 기간은 남성이 평균 47.89개월(표준편차: 27.38), 여성이 52.31개월(표준편차: 30.93)이었다. (Table 1 참조).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ale(N=78)		Female(N=125)	
		N	%	N	%
Age	19~24	28	27.5	23	13.9
	25~29	25	25.0	41	26.2
	30~35	48	47.4	94	59.9
	Mean(SD)	28.33(4.30)		29.61(3.62)	
Education	Middle School	3	3.1	0	0.0
	High School	15	15.0	17	11.0
	Undergraduate	76	75.1	134	85.2
	Graduate School	7	6.8	6	3.8
Employment	Regular Wage Worker	61	60.5	134	85.8
	Temporary Wage Worker	11	10.5	1	0.6
	Daily Wage Worker	1	1.1	2	1.5
	Employer with Employees	3	2.6	3	2.0
	Unemployed	26	25.3	16	10.2
	Mean(SD)	197.43(151.67)		225.90(101.85)	
Monthly income	~1 million won	38	35.2	21	13.2
	1.01~2 million won	5	4.7	17	10.9
	2.01~3 million won	27	26.4	85	54.0
	3.01~5 million won	33	32.8	33	20.7
	5.01 million~	1	8	0	0.0
	Missing	0	0	2	1.1
	Mean(SD)	197.43(151.67)		225.90(101.85)	
Duration of living alone	~12 months	8	8.2	3	2.1
	13~36 months	30	29.8	57	36.2
	37~60 months	39	39.1	41	26.4
	61~120 months	21	20.7	47	29.8
	121month~	2	2.1	9	5.5
	Mean(SD)	47.89 months (27.38)		52.31 months(30.93)	

### 3.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주요변수는 행복,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였다. 생활만족도는 보호 및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및 여가의 다섯 가지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기술통계 실시 결과, 주요변수들 모두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에 어긋나지 않았다(Tabel 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행복은 남성이 평균 6.91(표준편차:0.98)로 여성(평균: 6.8, 표준편차: 1.1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0.619$ ).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남성 평균: 3.59, 여성 평균: 3.44)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t=1.842$ ).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 남성과 여성간 교육과 주거영역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에서 남성은 평균 3.80(표준편차: 0.83), 여성은 3.54(표준편차: 0.71)로 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t=2.531$ ). 주거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남성: 3.62, 여성 3.29). 보호·안전 영역, 문화 및 안전영역의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건강, 고용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참조).

### 3.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의 값이 0.8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 값이 10 이하였고 공차가 1 미만으로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참조).

### 3.4 연구모형의 검증

도시 1인 가구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적 요인을 투입한 Model 1은 남성의 경우 행복에 대해 30.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 $R^2=0.303$ ,  $adj.R^2=0.282$ ) 여성은 12.3%의 설명력을 보였다( $R^2=0.123$ ,  $adj.R^2=0.087$ ). F값이 남성은 7.370, 여성은 3.480으로 두 집단 모두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Model 1에서는 남성의 경우 학력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력의 설명력이 42.7%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고( $\beta=0.427$ ,  $p<.001$ ), 주관적 계층 인식이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beta=0.357$ ,  $p<.001$ ). 이에 반해 여성은 주관적 계층 인식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27.1%의 설명력을 보였다( $\beta=0.271$ ,  $p<.01$ ).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variable	gender	Min.	Max.	Mean	SD	skewness (SD)	kurtosis (SD)	t value
Happiness	Male	5	8	6.91	.98	-.28(.24)	-1.15(.47)	.619
	Female	3	9	6.82	1.15	-1.10(.19)	2.25(.38)	
Subjective Social Class	Male	1	4	2.55	.88	.30(.24)	-.62(.47)	.467
	Female	1	4	2.60	.76	.79(.19)	.08(.38)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Original Family Members	Male	2	5	3.59	.67	-.28(.24)	-.02(.47)	1.842
	Female	2	5	3.44	.69	-.33(.19)	-.32(.38)	
Safety	Male	1	5	3.82	.89	-.76(.25)	.34(.49)	.105
	Female	2	5	3.80	.87	-.41(.20)	-.41(.40)	
Health	Male	2	5	3.70	.69	.41(.24)	-.74(.48)	-.102
	Female	2	5	3.79	.76	-.28(.19)	-.15(.39)	
Education	Male	1	5	3.80	.83	-.56(.24)	.44(.48)	2.531*
	Female	2	5	3.54	.71	-.06(.21)	-.20(.41)	
Employment	Male	1	5	3.52	.96	-.29(.25)	-.08(.48)	-.786
	Female	2	5	3.63	1.08	-.06(.20)	-.21(.40)	
Residence	Male	1	5	3.62	.85	-.73(.25)	1.08(.49)	2.768**
	Female	1	5	3.29	1.02	-.75(.19)	-.02(.39)	
Culture & leisure	Male	2	5	3.87	.73	-.51(.24)	.43(.48)	1.674
	Female	1	5	3.70	.94	-.42(.19)	-.12(.39)	

\* $p<.05$ , \*\* $p<.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018	.239*	.042	.159*	-.267**	-.418**	.631**	.259**	.298**	.413**	.401**	.468**	.185*
2	.075	1	-.209**	.689**	.631**	-.054	.301**	-.178*	.008	-.104	.040	.037	.113	.123
3	.248*	-.109	1	-.108	-.065	-.302**	-.268**	.223**	.104	.028	-.020	.000	.093	.069
4	.028	.599**	-.249*	1	.687**	.066	.231**	-.118	.023	.015	-.001	.132	.108	.203*
5	.097	.601**	-.016	.755**	1	-.244**	.206**	-.013	.055	.093	.213*	.222**	.265**	.261**
6	-.333**	-.230*	-.049	-.174	-.215*	1	.244**	-.279**	-.028	-.083	-.121	-.150	-.161*	-.110
7	.122	.280**	.085	.174	.297**	.167	1	-.408**	-.184*	-.301**	-.295**	-.289**	-.249**	-.215**
8	.294**	-.115	.440**	-.145	-.042	-.203	-.073	1	.106	.023	.296	.137	.245**	-.049
9	-.129	.032	-.094	-.099	-.191	.078	.066	.023	1	.413**	.438**	.469**	.557**	.557**
10	.003	-.253*	.136	-.186	-.164	.000	.133	.030	.270**	1	.434**	.455**	.331**	.609**
11	.253*	.061	-.097	.170	.123	-.078	.146	.054	.120	.158	1	.422**	.499**	.318**
12	.192	.003	-.212*	.245*	.228*	-.035	.115	-.115	.194	.131	.499**	1	.688**	.438**
13	.334	-.005	-.176	.120	.034	.001	.120	-.184	-.052	.259*	.500**	.435**	1	.528**
14	.164	.136	-.001	.056	.044	.076	.193	-.047	.334**	.425**	.513**	.341**	.457**	1

1. happiness, 2. age, 3. education, 4. employment, 5. monthly income, 6. subjective social class, 7. duration of living alone, 8.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original family members, 9. Life satisfaction-safety, 10. Life satisfaction-health, 11. Life satisfaction-education, 12. Life satisfaction-employment, 13. Life satisfaction-residence, 14. Life satisfaction-culture and leisure  
 \* p<0.5, \*\*p<.01

Note: The upper diagonal triangular part of the table is the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female.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of happiness in single-person youth household

		Model 1		Model 2		Model 3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Socio-demographic Factor	age	-.067	-.258*	-.087	-.042	-.061	-.021
	education †	.427***	.045	.363**	.008	.304**	-.021
	employment †	.101	.151	.146	.055	.044	.115
	monthly income	.052	.083	-.017	.168	.007	-.018
	Subjective Social Class	.357***	.271**	.344**	.043	.334**	.072
Household & Family Factor	duration of living alone			.148	-.250**	.120	-.082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Original Family Members			.202*	.497***	.299**	.462***
Life Satisfaction Factor	Safety					-.055	.002
	Health					-.083	.259**
	Education					-.119	.030
	Employment					.075	.043
	Residence					.413***	.297**
	Culture & leisure					.084	-.145
constant		5.257***	7.193	4.303***	3.507**	2.817**	1.039
R <sup>2</sup>		.303	.123	.350	.469	.518	.598
adj.R <sup>2</sup>		.282	.087	.295	.438	.434	.553
F		7.370***	3.480***	6.377***	15.459***	6.289***	13.349***
R <sup>2</sup> change		.303	.123	.047	.346***	.185**	.129***

† dummy variable(reference group: education(below high school), employment(unemployed))

\* p<0.5, \*\*p<.01, \*\*\*p<.001

가구 및 가족관계 요인으로 혼자 생활한 기간과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포함된 Model 2는 남성의 행복에 대해 35.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R^2=0.350$ ,  $adj.R^2=0.295$ ). 여성은 Model 1과 비교하면 34.6%가 증가한 46.9%의 설명력을 보였다( $R^2=0.469$ ,  $adj.R^2=0.438$ ). 남성의 경우 Model 1과 같이 주관적 계층 인식, 학력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며 Model 2에서 새로 투입한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Model 1에서 유의미했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혼자 생활한 기간,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beta=0.497$ ,  $p<.001$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 $\beta=-0.250$ ,  $p<.01$ ).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투입한 Model 3은 남성의 행복에 대해 5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R^2=0.518$ ,  $adj.R^2=0.434$ ). 여성은 59.8%의 설명력을 보였다( $R^2=0.598$ ,  $adj.R^2=0.553$ ). Model 3에서 남성과 여성 간 예측요인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성은 학력, 주관적 계층 인식, 원가족과의 만족도,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주거영역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건강영역과 주거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 주거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행복에 대해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beta=0.413$ ,  $p<.001$ ),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영향력 가진 변수는 주관적 계층 인식으로 자신이 사회적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beta=0.334$ ,  $p<.001$ ). 학력이 행복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는데 고졸 집단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나타냈다( $\beta=0.304$ ,  $p<.001$ ).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의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0.299$ ,  $p<.01$ ).

Model 3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였다( $\beta=0.462$ ,  $p<.001$ ). 여성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예측요인은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주거영역의 만족도였다( $\beta=0.297$ ,  $p<.01$ ). 다음으로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beta=0.259$ ,  $p<.01$ ) 이는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의 행복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 거주 1인 가구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실태조사(2018)에서 1인 가구 청년 26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 및 가족 요인, 생활영역별 만족도 요인으로 구성하여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gender)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Model 3>에서 남성 청년의 경우,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주거영역의 만족도'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beta=0.497$ ,  $p<.001$ ), 여성 청년의 경우 가구 및 가족 요인 중 하위요인인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beta=0.462$ ,  $p<.001$ ). 또한, 남성 청년에서 학력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여성 청년의 경우 이 두 변인 모두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지만, 남성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 하겠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주거영역의 만족도'였다. 먼저,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의 행복에 대해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모든 변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였다( $\beta=0.462$ ,  $p<.001$ ).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17,18]. 본 연구 대상이 원가족과 분리되어 독립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족복지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로, 우리 사회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원가족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어 청년 시기는 발달단계 상 외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갖추어 나가게 되지만, 심리 내적으로는 원가족인 부모와의 애정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여전히 청년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9]. 그러므로 청년의 행복을 증대하기 위해 원가족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년 시기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그 이전 발달단계부터 축적된 관계의 건강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청년 이전의 시기부터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 청년 둘 다에서 '주거영역의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성 청년의 경우,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영역의 만족도'는 쾌적한 주거 생활보장,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향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은 직장을 중심으로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편의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 소음, 소유 형태, 녹지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13]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와 박인경(2020)이 서울, 경기 지역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질적으로 낮은 주거환경과 월세 등의 불안정한 주거여건은 1인 가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청년의 소득대비 과도하게 높은 전·월세비용은 주거 빈곤을 경험하게 하며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8]. 특히 남성 청년에게서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것에 대해 고찰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 과정에서 주거 마련은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20] 1인 가구 남성 청년의 경우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 등 추후 미래 삶의 전망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이 취업 상태일 때 집 장만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는 전통적 입장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남성의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문화와 인식이 남성 청년의 주거 만족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주거 만족을 통한 청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직장 인근 지역인 도심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청년의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영국의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저가 싱글룸렌트정책[22], 주거비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과 '주거 만족' 외에 다른 영향요인들의 양상은 성차를 보였다. 남성 청년의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이 '주거 만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측력을 보인 반면 여성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은 1, 2단계에서는 유의미하였지만, 최종모델인 3단계 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삶의 만족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8]와 일맥상통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은 실제 월평균 소득 등의 절대적 소득과는 별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사회적 계층의 위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고, 지위와 서열 경쟁이 심한 동아시아권에서 사회적 계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다는 보고들을[18] 통해 남성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이 행복에 주요 영향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남성 청년의 경우 여성과 달리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과 관련지어 고려해볼 수 있겠다. 능력주의가 사회에 만연된 현 상황에서 학력은 사회적 자본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사회계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주관적 사회적 계층 인식이 남성 청년의 행복에 강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계층 인식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 위치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승헌 등(2017)은 청년의 불안정성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낮은 소득 때문에 희망이 좌절되는 경험을 겪게 되고 이 때문에 불행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8]. 이처럼 '수저계급론'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좌절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계층의 고정성이 높아 계층간 이동이 어려운 사회이고, 자신이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어 계층이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청년의 행복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존

고용 중심의 노력으로는 청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현재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가 미래에까지 고착되는 것이라는 절망을 갖지 않도록 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된 사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결과를 기대할 수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 청년은 건강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건강영역은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접근성 정도, 의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된 변인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23] 우리나라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다인 가구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고 건강증진 활동인 충분한 수면이나 운동,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4]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건강에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채현주와 김미종(2019)의 연구에 의하면 1인 가구 여성이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25]. 그러므로 1인 가구인 여성 청년의 건강영역 만족도 향상과 의료요구 충족을 통해 이들의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보건소, 복지관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하는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체의 여성의 유급생리휴가 보장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한 가구 당 가구원 1인이 답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원가족과의 함께 사는 청년의 행복도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인 1인 가구 청년집단과 원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과의 행복지수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청년세대의 행복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였기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 전국 규모의 청년 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 청년의 행복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지역별 청년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 중속변인인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구의 타당성 확보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행

복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검증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행복에 대한 다양한 예측 변인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의 성격과 같은 내재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 청년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M. Kim, J. Moon, K. Seong,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fluential Factors across Different Life Cycles in Adulthood: Application of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4, No.4, p. 857-875, 2014.
- [2] Sandel, M. J.,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 [3] S. Y. Cho, "IMF Korea's Choice, 'No one backs you up', What is the corona crisis in 2020?", *Sisa Today*. Retrieved from: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04> (accessed Dec, 12, 2020)
- [4] Y. G. Gwak, "Millenials, Financial Crisis-Corona Crisis'double Dip' Economic Strike", *Economic Review*,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6326625870272&mediaCodeNo=257&OutLnkChk=Y2020> (accessed Dec, 12, 2020)
- [5] Y. M. Kim, "Unequal Pathways to Adulthood: Inequality in Labor market and Family Formation Opportunities of Young Adults in Korea". *Social Science Review*, Vol.47 No.2, pp. 27-52, 2016.
- [6] G. H. Park, , "Working and home is a futile dream" The Npo-generation gave up hope", *Edaily*.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6326625870272&mediaCodeNo=257&OutLnkChk=Y> (accessed Aug, 23, 2020)
- [7] M. S.Park, , M. Y. Kim, K. A. Kim, J. W. Chun, "Factors of the Happiness of Youth Generations by Work-Life Balance: A Cross-National Comparison Utilizing the Better Life Index and World Valu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23, No.2, pp. 79-97, 2019. DOI: <http://dx.doi.org/10.22626/jkfrma.2019.23.2.005>
- [8] S. H. Han, D.H. Yim, and M. R. Kang, "Precariousness and Happiness of South Korean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Uncertainty and Disempowerment",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4, No.2, pp. 87-126, 2017.
- [9] J. A. Lee, C. K. Han, "A Study on the Impact of Saving on Youth's Happiness", *Social Welfare Policy*, Vol.42,

- No.4, pp. 75-100, 2015.
- [10] B. H. Seong, S. A. Yoon,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vol.6, pp.103-134, 2010.
- [11] Statistics Korea. "Single-Person Households Reviewed By Statistics. 2020",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17](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17) (accessed Jan, 30, 2021)
- [12] S. Y. Kim,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 Youth",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pp. 11-16, 2018
- [13] J. H. Jang, Y. J. Kim, "A Study on Young Single Female-Headed Households in Seoul and Policy Implication", in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Project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p. 1-226, 2016.
- [14] Y. J. Kim, I.K. Gwak,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epress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Vol.15, No.4, pp. 242-250, 2020.  
DOI: <https://doi.org/10.35216/kisd.2020.15.4.241>
- [15] J. K. Kim,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Perceived by Youth Generat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5, No.3, pp. 209-245, 2018.
- [16] M. S. Kim, Y. S. Ha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Vol.7, No.2, pp. 1-38, 2006.
- [17] M., Hori, Y. Kamo, "Gender differences in happiness: the effects of marriage, social roles, and social support in East Asi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3, No.4, pp. 839-857, 2018.  
DOI: <https://doi.org/10.1007/s11482-017-9559-y>
- [18] J. W. Kim, "Subjective Social Class,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s: The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7, No.4, pp. 97-127, 2019.  
DOI: <http://dx.doi.org/10.24145/KJPA.57.4.4>
- [19] M. S. Lee,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Health, Social-support, and Future-expectation on Korean Young Peoples Subjective Happ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7, pp. 179-199, 2015.
- [20] Y. B. Seo, "Two out of three newlywed couples, 'Montly-Rent Honeymoon', is the responsibility of 'male' to prepare the newlyweds", NEW1. Retrieved fro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42630> (accessed Jan, 3, 2021)
- [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National Fertility History and Family Health Welfare Survey", 2019. Retrieved from: <https://www.kihasa.re.kr/web/activity/research/view.do?menuId=39&tid=72&bid=93&division=003&ano=2665> (accessed Dec, 20, 2020)
- [22] T. J. Lee, "Customized Housing Support Policy Plan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of You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 [23] I. J. Lee, "Factors affecting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ancer Survivor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2, pp.497-507,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2.497>
- [24] E. G. Kim, S. K. Park,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Disease Prevalence between One-person women and Multiple. households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3, pp. 483-494, 2016.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483>
- [25] H. J. Chae, M. K. Kim, "Health Behavior, Health Service Us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Adult Women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5, No.3, pp. 299-314, 2019.  
DOI: <https://doi.org/10.4069/kiwhn.2019.25.3.299>

이 인 정(In-Jeo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김 미 영(Mi-Young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사회복지